

간호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김 현 주¹⁾ · 정 미 영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들어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하여 심리사회적 정서와 자존감이 중요한 개인적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Gee & Yoo, 2013; Kim & Jeon, 2013). 정서적 정보를 유능하게 다루고 조절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 상황에 적응이 빠르고 개인 내적인 요인에 따라 동일한 어려움에 처했다라도 개인 별 적응양상이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Carroll, 2001; Gee & Yoo, 2013). 정서지능은 감정을 지각, 인식, 표현하는 능력, 감정을 이용한 사고촉진 능력, 감정과 감정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정서와 지적인 성장을 위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으로 개인이 위기나 기회상황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Carroll, 2001). 대학생 대상의 선행연구에서 정서지능이 학업성취와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는데 영향이 있었고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진로탐색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Jung & Kim, 2010; Yoo & Lee, 2005).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선행연구에서도 정서지능이 조직 몰입, 의사소통 기술 및 직업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와 이직 의도가 낮았다고 하였다(Lee, 2010; Ranjbar et al, 2012; Sung, Hwang, Kim & Chun, 2010). 간호대학생의 정서지능은 향후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환자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인간적 교감을 가능하게 하여 환자간호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Gee & Yoo, 2013).

한편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와 시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촉진하는 원동력이 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동료들도 따르는 지도자가 되며,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전반적인 삶의 보람을 느끼며, 자신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뿐 아니라 타인도 귀하게 여기게 된다(Rosenberg, 1965). 특히 간호대학생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지닐수록 현재 생활 전반에 만족할 뿐 아니라 전공만족도도 높고 부정적 정서가 낮으며(Shin, 2013)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아(Hwang, 2006) 간호전문직에 대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Ha & Choi, 2011). 훌륭한 전문직업인으로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처해진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건설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Ha & Choi, 2011). 간호대학생은 자아정체성의 확립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등 후기 청소년기의 기본적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함은 물론(Ha & Choi, 2011) 과중한 교과과정 이수과 임상실습, 환자에 대한 책임감, 엄격한 행동규범 등으로 인한 상황에서 생기는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Hwang, 2006). 그 동안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주요변수로 하여 전공만족, 자기효능감, 정신건강, 학업성취도, 스트레스 대응방법 등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에서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취, 전공만족, 정신건

주요어 : 정서지능, 자아존중감, 학생

1)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2) 선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교신저자 E-mail: mi3640@naver.com)

투고일: 2015년 10월 10일 수정일: 2015년 11월 13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5일

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반응에 있어 완충작용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Ha & Choi, 2011; Hwang, 2006; Shin, 2013).

그 동안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는 유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태도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거나 아동의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어 있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본 연구는 Jung과 Chung(2012)이 간호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 외에는 거의 없다. 대학교육 과정은 사회 진입을 위한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데 특히 간호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고취와 정서지능의 제고를 통해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타인에 대한 이해와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 등이 가능하도록 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 정도를 확인하고 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대학생들 지도에 도움을 주고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확립과 정서함양을 위한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간호대학생의 정서지능, 자아존중감 정도를 파악한다.
-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지능, 자아존중감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셋째, 간호대학생의 학업관련 특성에 따른 정서지능, 자아존중감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넷째, 간호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의 수준을 확인하고, 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대상자는 B시에 소재한 일개 간호대학 재학생 323명을 편의 수집하였다.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2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일 때 최소 305명이 산출되어(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 이를 충족하였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조사원이 연구의 목적, 방법, 익명성, 설문참여에 대한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설문도중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강조한 후 설문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면 설문작성 후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연구 도구

● 일반적 특성과 학업관련 특성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학년, 주관적 경제상태, 종교, 일상생활 스트레스 수준 등 6문항을 조사하였고, 학업관련 특성으로는 간호학과 선택 동기, 간호학과에 대한 만족도, 학업 스트레스 수준, 직전 학기 성적에 대한 주관적인 학업성취도, 교우관계, 고등학교 분야 등 6문항을 조사하였다.

● 정서지능

정서지능은 다양한 상황에 있어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여 이해하고, 정서를 활용, 조절하는 능력으로, 본 연구에서는 Wong과 Law (2002)이 개발한 도구를 Kim과 Yoo (2005)가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6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전체 점수의 범위는 16~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81이었다.

●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Rosenberg(1965)가 개발한 도구를 Lee, Nam, Lee, Lee와 Lee(2009)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전체 점수의 범위는 10~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60이었다.

자료 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였고 실험자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훈련받은 연구조사원 1인이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만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설문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 이었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Window용(ver. 9.2)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업관련 특성, 정서지능 및 자아존중감의 수준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학업관련 특성에 따른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정도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업관련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7세으로 20세 초과인 경우가 179명(55.5%) 이었다. 대상자 중 여학생이 282명(87.3%) 이었으며, 1학년이 63명(19.5%), 2학년이 100명(30.9%), 3학년이 110명(34.1%), 4학년이 50명(15.5%) 이었다.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상태가 ‘보통’인 경우가 233명(72.1%)이었고, 종교가 있는 경우가 162명(50.2%) 이었다.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가 ‘상’인 경우가 60명(18.6%), ‘중’인 경우가 193명(59.7%), ‘하’인 경우가 70명(21.7%) 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Academic status of Subjects (N=323)

Characteristics	Category	n(%) or Mean±SD(range)
General characteristics		
	21.7±3.4 (18-40)	
Age(year)	≤20	144 (44.6)
	>20	179 (55.4)
Gender	Male	41 (12.7)
	Female	282 (87.3)
Academic year	Freshman	63 (19.5)
	Sophomore	100 (30.9)
	Junior	110 (34.1)
	Senior	50 (15.5)
Subjective economic status	Very good	35 (10.8)
	Good	233 (72.1)
	Poor	55 (17.1)
Religion	Have	162 (50.2)
	None	161 (49.8)
Stress of activity daily living	High levels	60 (18.6)
	Mid levels	193 (59.7)
	Low levels	70 (21.7)
Academic status characteristics		
Motivation of admission	Employment guarantee	160 (49.5)
	Aptitude	104 (32.2)
	Recommendation of people	42 (13.0)
	Public service	17 (5.3)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action	229 (70.9)
	Dissatisfaction	94 (29.1)
Stress of study	High levels	137 (42.4)
	Mid levels	170 (52.6)
	Low levels	16 (5.0)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High levels	48 (14.9)
	Mid levels	185 (57.3)
	Low levels	90 (27.9)
Interpersonal relationship	Not good	19 (5.9)
	Moderate	167 (51.7)
	Good	137 (42.4)
High school affiliation	Literary course	167 (51.7)
	Science course	144 (44.6)
	Other	12 (3.7)

간호학과를 선택한 동기가 ‘취업 전망이 좋아서’인 경우가 160명(49.5%)이었고, ‘적성에 맞아서’ 104명(32.2%), ‘타인의 권유로’ 42명(13.0%), ‘봉사하고 싶어서’가 17명(5.3%)이었다. 그리고 간호학과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경우가 229명(70.9%)이었으며, 학업 스트레스 정도가 ‘상’인 경우가 137명(42.4%), ‘중’인 경우가 170명(52.6%), ‘하’인 경우가 16명(5.0%)이었다. 직전 학기 성적에 대한 주관적인 학업성취도는 ‘중’인 경우가 185명(57.3%)이었고, 교우관계가 ‘보통’ 또는 ‘좋은 편’인 경우가 304명(94.1%)이었으며, 대상자 중 고등학교 분야가 문과인 경우가 167명(51.7%), 이과가 144명(44.6%), 기타 12명(3.7%)이었다(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의 차이

대상자의 정서지능 정도는 5점 만점에 3.61점(80점 만점에 57.72점)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지능은 연령($p=.023$), 성별($p<.001$),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 검정 결과 20세 초과인 경우의 정서지능은 3.66점으로 20세 이하인 경우의 3.54점보다 높았으며, 남학생의 정서지능은 3.87점으로 여학생의 3.57점보다 높았고,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가 ‘하’인 경우의 정서지능은 3.78점으로 ‘상’인 경우 3.46점과 ‘중’인 경우 3.59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4점 만점에 2.92점(40점 만점

에 29.16점)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연령($p=.021$), 성별($p=.019$),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검정 결과 20세 초과인 경우의 자아존중감은 2.97점으로 20세 이하인 경우의 2.85점보다 높았으며,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은 3.07점으로 여학생의 2.89점보다 높았고,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는 높았다(Table 2).

대상자의 학업관련 특성에 따른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의 차이

학업관련 특성에 따른 정서지능은 간호학과 선택 동기($p=.044$), 간호학과 만족도($p<.001$), 학업스트레스 정도($p<.001$), 주관적 학업성취도($p<.001$), 교우관계($p<.001$), 고등학교 분야($p=.037$)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 결과 간호학과 선택 동기가 ‘적성에 맞아서’인 경우 3.69점, ‘봉사하고 싶어서’인 경우 3.79점으로 ‘취업전망이 좋아서’인 경우 3.55점 보다 정서지능이 높았다. 간호학과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의 정서지능은 3.69점으로 ‘불만족’하는 경우의 3.41점보다 높았으며, 학업 스트레스 정도가 낮을수록 정서지능 정도는 높았고, 직전 학기 성적에 대한 주관적인 학업성취도가 ‘상’인 경우 3.83점과 ‘중’인 경우 3.61점의 정서지능이 ‘하’인 경우 3.48점보다 높았다. 교우관계가 좋은 편인 경우의 정서지능은 3.73점으로 보통인 경우의 3.52점보다 높았으며, 고등학교 분야가 문과인 경우의 정서지능은 3.64점으로 기타인 경우의

<Table 2>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stee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23)

Characteristics	Category	Emotional intelligence		Self-esteem	
		Mean±SD	t/F(p)	Mean±SD	t/F(p)
Age(year)	≤20	3.54±.49		2.85±.43	
	>20	3.66±.47	-2.28(.023)	2.97±.46	-2.33(.021)
Gender	Male	3.87±.45		3.07±.41	
	Female	3.57±.47	3.84(<.001)	2.89±.45	2.36(.019)
Academic year	Freshman	3.64±.54		2.91±.42	
	Sophomore	3.57±.40		2.88±.42	
	Junior	3.61±.52	0.40(.755)	2.94±.49	0.41(.743)
	Senior	3.64±.48		2.95±.47	
Subjective economic status	Very good	3.66±.58		2.87±.53	
	Good	3.60±.46	0.40(.774)	2.92±.42	0.19(.824)
	Poor	3.61±.52		2.93±.51	
Religion	Have	3.62±.50		2.88±.45	
	None	3.60±.46	0.36(.717)	2.95±.45	-1.46(.146)
Stress of activity daily living	High levels	3.46±.51 ^a		2.71±.43 ^b	
	Mid levels	3.59±.47 ^b	7.63(<.001)	2.88±.43 ^b	24.27(<.001)
	Low levels	3.78±.43 ^c	a, b<c	3.20±.38 ^c	a<b<c
Total		3.61±.48		2.92±.45	
		57.72±7.71		29.16±4.51	

^{a,b,c}=Scheffé test

3.27점보다 높았다.

학업관련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간호학과 만족도($p<.001$), 학업스트레스 정도($p<.001$), 주관적 학업성취도($p<.001$), 교우관계($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검정 결과 간호학과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의 자아존중감은 3.01점으로 ‘불만족’하는 경우의 2.69점보다 높았고, 학업 스트레스 정도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는 높았으며, 직전 학기 성적에 대한 주관적인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도 높았다. 그리고 교우관계가 좋은 편인 경우의 자아존중감은 3.06점으로 어려운 편인 경우 2.73점과 보통인 경우 2.82점보다 높았다(Table 3).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과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정서지능은 자아존중감과 정상관관계가 있었다($r=.52, p<.001$). 즉, 정서지능 정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도 높았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Emotional intelligence (N=323)

Variable	Emotional intelligence
	r(ρ)
Self-esteem	.52 (<.001)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 정도를 확인하고 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대학생활 지도에 도움을 주고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확립과 정서함양을 위한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정서지능은 80점 만점에 57.72점이었다. 이는 일반 대학생의 56.16점과 신입간호사의 46.24점 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임상경력 7년 이상 전문 간호사의 58.66점 보다 낮았다(Cho & Hwang, 2014; Lee et al, 2009; Sung et al, 2010). Moon과 Kwak(2005)은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가 매우 원만하여 쾌활하고 책임감과 동정심이 강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알며 정서표현을 적절히 하여 자신과 타인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간호대학생이 일반 대학생보다 정서지능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간호가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특성을 토대로 이론 및 실습교육 과정에서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형성과 배려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조절해 나가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입간호사의 경우에는 임상실무 적응기간 동안 간호업무 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거나 조절할 여유가 없고 동료간호사 및 타 부서 사람들 간의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데 미숙한 성향을 보이므로 전문 간호사에 비해 정서지능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Cho & Hwang, 2014).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

<Table 3>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steem according to Academic status characteristics (N=323)

Characteristics	Category	Emotional intelligence		Self-esteem	
		Mean±SD	t/F(p)	Mean±SD	t/F(p)
Motivation of admission	Aptitude	3.69±.50 ^a		2.95±.45	
	Recommendation of people	3.57±.55	2.73(.044)	2.88±.47	0.97(.405)
	Employment guarantee	3.55±.44 ^b	a, c>b	2.89±.46	
	Public service	3.79±.41 ^c		3.05±.37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action	3.69±.44	4.48(<.001)	3.01±.44	
	Dissatisfaction	3.41±.52		2.69±.41	
Stress of study	High levels	3.49±.51 ^a	12.23(<.001)	2.80±.49 ^a	18.37(<.001)
	Mid levels	3.66±.42 ^b		2.96±.38 ^b	
	Low levels	4.05±.50 ^c		3.45±.32 ^c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High levels	3.83±.35 ^a	8.34(<.001)	3.19±.37 ^a	16.79(<.001)
	Mid levels	3.61±.50 ^b		2.93±.43 ^b	
	Low levels	3.48±.46 ^c		2.75±.45 ^c	
Interpersonal relationship	Not good	3.54±.58	7.52(<.001)	2.73±.59 ^a	12.79(<.001)
	Moderate	3.52±.46 ^a		2.82±.41 ^b	
	Good	3.73±.48 ^b		3.06±.44 ^c	
High school affiliation	Literary course	3.64±.44 ^a	3.34(.037)	2.94±.44	0.79(.454)
	Science course	3.60±.52		2.90±.47	
	Other	3.27±.48 ^b		2.78±.39	

^{a,b,c}=Scheffé test

무 적응을 돕기 위한 실습교육의 내실화와 더불어 자신의 정서상태를 확인 및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다양한 활동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2.92점으로 100점 기준 환산 시 73.0점이었고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Kim(2013)의 연구에서도 73.0점으로 나타나 같은 수준이었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삶을 바람직하게 이끌어 가는 내적인 힘으로 대학생활의 적응을 돕고 학업성취 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학 교육 및 학생지도에 어떤 형태로 반영시킬지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간호교육 과정에서도 간호 지식과 경험, 기술, 확고한 간호가치관 및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확립을 이룰 수 있도록 자아존중감이 갖는 의미를 확인하고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에 차이를 나타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일상생활 스트레스 이었다. 연령의 경우 20세 초과 학생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이 20세 이하 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은 학년의 진급 또는 교육 수혜의 누적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연령별, 학년별 간호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를 통해 학년별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 함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성별도 정서지능 및 자아존중감 정도에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Shin(2013)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연구에 따라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거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등 다르게 나타나므로 반복 연구를 통해 성별에 따른 정서지능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성별에 따른 정서지능 및 자아존중감의 함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일상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은 경우에 비해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 모두 높게 나타났다. 정서조절과 자아존중감은 정신건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 있다고 인식함에 따라 긍정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Kim & Jeon, 2013).

본 연구에서 학업관련 특성에 따른 정서지능 및 자아존중감은 간호학과 만족도, 학업스트레스, 주관적 학업성취도, 교우관계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정서지능의 경우 간호학과 선택 동기와 고등학교 분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학과에 만족하는 학생이 불만족 학생에 비해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의 전공을 평가하는 것이다. 전공이 직업선택과 일치하고, 학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명성이 좋을 때 전공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Kim & Ha, 2000)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자신의 전공에 대해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전공만족도 또한 높다는 선행연구(Shin, 2013)와 본 연구결과는 유사하다 하겠다. 정서지능 역시 간호학과에 만족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정서지능이 적절한 방식으로 정서를 표현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능력(Carroll, 2001)이라고 볼 때 정신적 건강상태를 유지시켜주고 자신의 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정서지능이 직업만족도와 더불어 직업적 성공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Jang, 2005)를 지지한다. 나아가 높은 정서지능이 신입간호사의 업무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Cho & Hwang, 2014)가 시사한 바를 바탕으로 간호학과 교육과정 내 정서지능 함양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 정도와 주관적 학업성취도에 따라 정서지능 및 자아존중감 정도에 차이를 보였으며 학업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은 낮았고 주관적 학업성취도가 높을 때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일반 대학생들과 달리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의 특성으로 인해 긴장감, 임상실습병행에 따른 부담, 국가고시 합격이라는 목표를 향한 일련의 학업과정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Park, Bac, & Jung, 2002; Son, Choi, & Song, 2010). 이러한 학업스트레스가 학생들에게 근심, 불안, 초조함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학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대처하는가가 중요하다 하겠다.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행동과 적응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며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Crocker, Luthanen & Broadnax, 1994). 정서지능 역시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대처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Bastian, Burns & Nettelbeck, 2005)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뒷받침 한다고 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덜어주고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전개하여 전공 학문에 대한 흥미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우관계에 따라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 정도에 차이를 보였는데 교우관계가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간호대학생이 보통 또는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에 비해

정서지능 및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며,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Kim, 2004). 대학생들은 인간관계를 통해 사회적 지지자원을 얻게 되어 심리·정서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어 이 시기에는 중요한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대인관계능력이 필요하다(Gee & Yoo, 2013). 특히 간호대학생은 추후 임상에서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형성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Kwon & Yeun, 2007) 대인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한편 교우관계가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보통 또는 어려운 편이라 응답한 학생에 비해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의 경우 대인관계가 매우 원만하여 쾌활하고 책임감과 동정심이 강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알며 정서 표현을 적절히 하여 자신과 타인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특성을 가진다고 보고한 연구(Gee & Yoo, 2013; Jung & Chung, 2012; Moon & Kwak, 2005) 결과를 뒷받침한다. 정서지능이 자기인식, 충동 통제, 인내심, 열정, 자기 동기화, 감정이입을 포함하는 능력(Kong, 2014)임을 볼 때 간호대학생의 정서지능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건강과 정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정서지능의 경우 간호학과 선택 동기와 고등학교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간호학과 선택 동기 중 적성에 맞거나 봉사하고 싶어 지원한 간호대학생이 취업전망이 좋아 지원한 경우보다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났는데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데 있어 충분한 이해와 판단능력이 있으며(Jung & Kim, 2010) 개인적 선호와 열정, 자신에 대한 긍정적 지각, 성취감과 일에 대한 만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이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개인이 만족할 만한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Kong, 2014)는 것을 감안하면 학생 개인의 정서는 이성적인 추론이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필수사항임을 알 수 있다. 정서지능은 고등학교 분야에 따라서도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문과 분야 학생이 기타 분야의 학생에 비해 정서지능이 높았다. 고등학교 문과분야 교육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주가 되는데 이는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영역으로서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탐색하는데 있어 유용하다(Shin, 2012). 따라서 문과 학생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시야가 넓고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찾는 데에도 더욱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어 이 같은 결과를 나타낸 것이라 짐작된다.

본 연구에서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은 정 상관관계가 있어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도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Jung과 Chung(2012)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은 정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대학생들은 자신을 가치 있고 중요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여 대학생활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에도 잘 대처해 나가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 및 조절하는 능력이 높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볼 때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개인별, 학년별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 정도를 파악하는 한편 이를 고양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 간호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로 확대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최근 간호교육계에서 중시하는 대인관계 기술 함양, 인성교육 강화, 간호전문직관 확립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교육프로그램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 정도를 확인하고 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간호대학생의 연령, 성별, 일상생활 스트레스, 간호학과 만족도,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도, 교우관계에 따라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 정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는 정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입학시점부터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 고취를 위한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교과목 내에서의 프로그램은 봉사학점 이수 인증제, 정서순화를 위한 문학 및 예술 활동 교과목 개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 향상을 위한 사례기반 실습교육 등을 통해 정서지능 및 자아존중감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과외 프로그램은 자아탐색을 통한 객관적 자기평가 기회를 제공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여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을 격려하며 학과적응을 돕기 위한 학년별 지도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노력은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전문직관의 확립에 유용하며 졸업 후 실무현장에서의 적응을 돕고 나아가 간호업무 수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학년에 따라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의 변화양상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정서지능 및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한 졸업생이 임상에서 신규간호사로서 적응하는 과정을 확인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Bastian, V. A., Burns, N. R., & Nettelbeck, T. (2005). Emotional intelligence predicts life skills, but not as well as personality and cognitive abiliti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6), 1135-1145.
- Carroll, E. I. (2001). Emotional intelligence or adaptive emotions?. *Emotion, 1*(3), 249-257.
- Cho, O. H., & Hwang, K. H. (2014). The influences between new nurses' nursing performance, emotional intelligence, self-resiliency and core self-evaluation. *The Korea Content Society, 14*(7), 291-301.
- Crocker, J. R., Luthanen, B. & Broadnax, S. (1994). Collective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white, black, and asian college stud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5), 503-513.
- Faul, F., Erdfelder, E., Lang, A. G., & Buchner, A.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 Gee, K. J., & Yoo, J. Y. (2013). A study of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sychological happiness university student division of health.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10), 653-660.
- Ha, N. J., & Choi, J. (2011). A longitudinal study on professional socialization,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8*(2), 73-85.
- Hwang, S. J.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2), 205-213.
- Jang, M. H. (2005). *Study on moral education as the application of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Jung, H. J., & Chung, H. I. (2012). Effects of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1*(3), 188-196.
- Jung, S. H., & Kim, K. M. (2010).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search self-efficac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2), 739-753.
- Kim, C. G. (2013). Effects of perceived death and self-esteem on meaning in lif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7*(3), 539-550.
- Kim, C. S., & Yoo, T. Y. (2005). The conceptual distinction among emotional intelligence(EI), cognitive ability and personality and the examination of the incremental validity of EI on task performance, contextual performance, and adaptive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8*(2), 271-298.
- Kim, K. H., & Ha, H. S. (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 7-20.
- Kim, M. H. (2004). *Study on family system,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Colleagu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seo University, Chungnam.
- Kim, S. O., & Jeon, Y. J. (2013).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university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 focused on depression and anxiety. *Korea Association Human Ecology, 22*(4), 539-558.
- Kong, Y. J. (2014). The role of emotion in career decision making process. *Asian Journal of Education, 15*(1), 27-43.
- Kwon, Y. M., & Yeun, E. J. (2007).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3*(3), 285-292.
- Lee, J. Y., Nam, S. K., Lee, M. K., Lee, J. H., & Lee, S. M. (2009). Rosenberg` self-esteem scale: analysis of item-level validit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21*(1), 173-189.
- Lee, S. (2010). Emotional intelligence and job stress of clinical nurses in local public hospital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6*(4), 466-474.
- Moon, Y. L., & Kwak, Y. J. (2005).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performance in the organization.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2*(4), 19-31.
- Park, H. S., Bae, Y. J., & Jung, S. Y. (2002). A study on self-esteem, self-efficacy, coping methods and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1*(4), 621-631.
- Ranjbar, E. M., Bahrami, M. A., Hadizadeh, F., Arab, M., Nasiri, S., Amiresmaili, M., & Ahmadi, T. G. (2012). Nurses' emotional intelligence impact on the quality of hospital services. *Iranian Red Crescent Medical Journal, 14*(12), 758-763.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in, J. H. (2012). Exploratory study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university. *Journal of Korean Business Education Association, 23*(4), 15-37.
- Shin, M. A. (2013). Effect of volunteering, self-esteem and job-esteem on major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 Society, 13*(11), 1024-1035.
- Son, Y. J., Choi, E. Y., & Song, Y. A.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18*(4), 345-352.

Sung, Y. H., Hwang, M. S., Kim, K. S., & Chun, N. M. (2010). Influence of clinical nurse specialists'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ir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6(3)*, 259-266.

Wong, C. S., & Law, K. S. (2002). The effect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13(3)*, 243-274.

Yoo, N. H., & Lee, K. H. (2005). The effects of attachment, psychological independ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17(2)*, 451-466.

Rel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Kim, Hyun-Ju¹⁾ · Chung, Mi Young²⁾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2)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unmoon University

Purpose: This descriptive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 between nursing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steem. **Method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was employed. The subjects were 323 students from a nursing college in B City.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steem from October to December, 2014. **Results:** The nursing students scored 3.61 out of 5 in emotional intelligence and 2.92 out of 4 in self-esteem.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steem according to age, gender, daily life stress,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major, learning stress,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and peer relationships. Emotional intelligence also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ccordance with the motivation to choose the nursing major and the field in high school. Positive correlations were observed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Conclusions:** Based on those finding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an array of educational programs to help nursing students improve their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steem throughout the college curriculum. These efforts will also be effective in building thei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major and view of nursing profession.

Key words : Emotional intelligence, Self-esteem, Student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ung, Mi Young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Sunmoon University

70 Sunmoon-ro, 221 beon-gil, Tangjeong-myeon, Asan 336-708, Korea.

Tel: 82-41-530-2752 Fax: 82-41-530-2725 E-mail: mi3640@naver.com